

Basell, PP 생산능력 700만톤으로

Spherizone 30만-40만톤 프로젝트 추진 ... NPC와의 합작투자로 활발

Basell이 Spherizone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PP(Polypropylene) 30만-40만톤 플랜트 건설부지 조사에 들어갔다.

2004년까지 플랜트 건설부지를 선정하고 2007년 완공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프랑스 Berre와 영국 Carrington, 미국 루이지애나주 Lake Charles, 네덜란드 Moerdijk, 캐나다 온타리오주 Sarnia, 독일 Wesseling 등이 거론되고 있고 Shell의 북미 원유정제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asell은 Shell Chemicals과 BASF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PP 프로젝트는 Basell이 예전에 발표한 바 있다. 생산능력이 떨어지거나 Spheripol 프로세스를 이용하지 않는 PP 플랜트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Spherizone 기술은 Ziegler-Natta 촉매를 사용하며 Spheripol 프로세스보다 균일성 및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월등하다. 또 2개의 리액터(Reactor)에서 Homopolymer, Monomodal, Biomodal, Random 및 Twin Random Copolymer를 생산한다.

Basell은 이태리 Brindisi 소재 16만톤 플랜트에서 Spherizone PP와 Standard Spheripol PP Resin을 생산함으로써 Spherizone 프로세스 검증에 성공했다. Twin Random Copolymer는 Standard 그레이트 PP에 비해 톤당 100유로의 프리미엄이 추가돼 거래된다.

그러나 최근 Basell은 수요 약세로 인해 몇몇 Metallocene PP 플랜트 가동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asell은 이란 NPC(National Petrochemical Co.)와 합작으로 Simorgh Basell을 설립해 LDPE Bandar Imam 소재 플랜트 건설계획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Basell이 Simorgh의 대주주이며 Basell의 Lupotech 기술을 기반으로 LDPE 32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6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Basell과 NPC는 합작 프로젝트 동의안을 마무리 짓고 플랜트 투자비용 1억-2억유로(1억1800만-2억3600만달러)를 공동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Basell과 NPC, Shell의 합작기업 Aspire가 추진하는 Ethylene 및 유도제품 프로젝트는 2007년 말 Bandar Imam에서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Aspire 프로젝트는 Ethane 베이스 에틸렌 110만톤 크래커를 포함하고 있는데, Ethane 크래커는 앞으로 EO(Ethylene Oxide)와 EH(Ethylene Glycol) 플랜트 및 각각 35만톤 생산능력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MDPE(Medium-Density Polyethylene) 플랜트에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Basell의 PP 생산능력은 2003년 총 70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Basell이 지분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합작기업 Saudi Polyolefins은 2004년 1월부터 사우디 Al Jubail 소재 PP 45만톤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고 2004년 말까지 오스트레일리아 Geelong 소재 PP 플랜트 생산능력을 13만톤으로 100% 확대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6>